



# 순교자의 소리

The Voice of the Martyrs

2020.06



경찰서에 구류된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떠한 심문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쳤다.

중국 정부에 대한 영적 불복종



## 폴리 목사 부부가 전하는 글

지난겨울, 중국 기독교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난관에 부닥쳤지만, 그것만이 그들이 직면한 유일한 어려움은 아닙니다. 교회를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새 법안이 2018년 2월에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를 핑계 삼아 새로운 방식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많은 교회가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현장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 방식을 전환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이 아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심지어 온라인 예배까지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9월에는 439명의 중국 목회자가 이른비언약교회 왕이Wang Yi 목사님이 작성한 신앙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이 선언서에서 자신과 교회가 정부의 정치적 요구사항에 협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른비언약교회에 관한 아래 기사를 읽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중국 형제자매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지 배우시길 권면드립니다. 아울러 아래 QR코드를 사진앱으로 스캔하여 왕이 목사님이 작성한 신앙 선언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함께 서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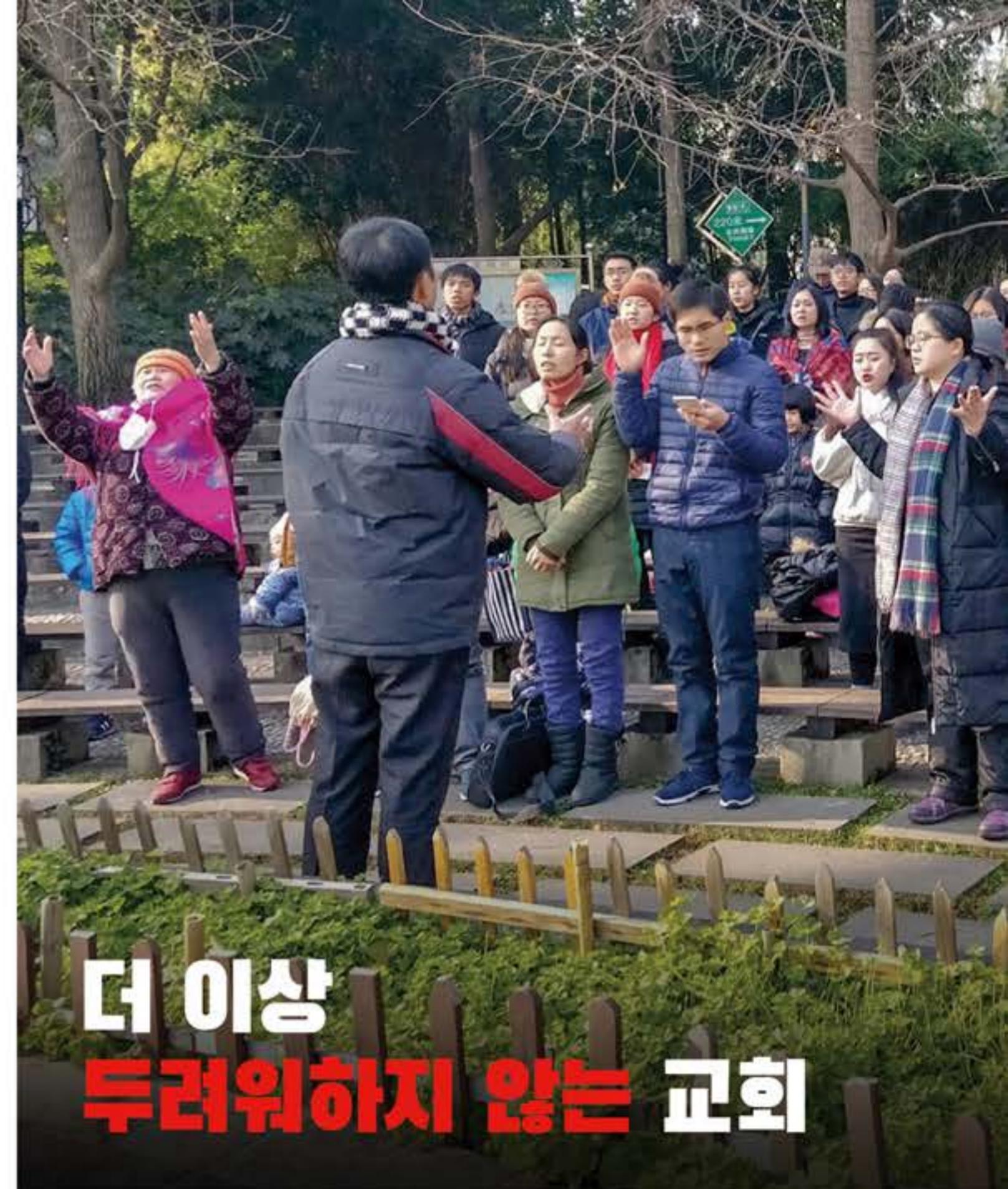


**2** 018년, 중국 청두Chengdu시 이른비언약교회The Early Rain Covenant Church는 교회를 폐쇄하라는 공산당 정부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임을 이어갔다. 정부 당국자들은 허위자백서에 서명하라고 압박했고, 교인들을 경찰서에 구금했으며,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고문을 가했다. 그러나 담임목회자가 투옥된 상태에서도 교인들은 담대하게 계속 모여 예배드렸다.

이른비언약교회 리윙치앙Li Yingqiang 장로는 체포되기 직전, 교인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고난 덕분에 우리가 복음의 달콤한 향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이른비언약교회는 2004년에 가정 성경공부모임으로 시작되었고, 2008년에는 공산당 정부에서 독립된 교회, 즉 불법 교회가 되었다. 그 이듬해에는 왕이 목사를 담임목사로 임명했다. 2004년에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 왕이 목사는 그 전에 변호사 겸 청두대학의 법학 교수였다.

애초부터 이른비언약교회는 예배를 의도적으로 공개했을 뿐 아니라 청주시와 중국 전체에 대한 선교적 입장도 밝혔다. 이른비언약교회의 전략은 정부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기독교 신념을 굳게 붙잡는 것이었다. 왕이 목사는 “복음과 양심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국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고난을 받는 것은 현실과 다른



▲ 교회가 폐쇄된 뒤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은 예배중지 명령에 굴하지 않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다.

영원한 세상과 영화로운 왕이 계신다는 진리를 증언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라고 기록했다.

이른비언약교회는 중국 가정교회들 사이에서 전도와 구제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로 유명하다. 이는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원하는 일반적인 교회라면 하지 않는 독특한 활동이다. 또한 이른비언약교회 지도자들은 낙태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무신론 중국 정부에 협조하는 삼자교회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2013년, 시진핑Xi Jinping은 중국 공산당 총비서가 되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자리에 올랐다. 국가 주석으로서 그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가진 한편, 종교와 극단주의 이념을 통한 외세의 ‘침투’에 대비하라고 국민에게 촉구했다. 2017년 9월, 중국 국무회의에서 ‘종교 사무 행정’에 관한 새 규제법을 발표한 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의 종교 생활을 책임지고 규제할 정부 부처를 통합했다.

2018년 3월, 삼자 애국 운동과 중국 기독교 협회China Christian Co-

▼ 이른비언약교회의 담임 목사 왕이





“복음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자유와 목숨까지도.”

- 왕이, 이른비언약교회 담임 목사

uncil(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또 다른 기관)은 ‘기독교의 중국화’를 촉진하기 위한 5년 계획에 착수했다. 중국화란 모든 것을 중국 문화의 영향력 아래 종속시키는 과정이다. 중국화를 외치는 이들은 교회의 예배, 찬양과 노래, 성직자 복장 및 예배당 건축 방식에 중국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을 옹호한다. 차이나 에이드 협회China Aid Association의 밍푸Bob Fu 목사는 이 계획으로 인해 ‘문화 혁명 아래 최악의 박해’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역에서 관리들이 예배당 건물의 십자가를 철거했다. 정부 승인을 받은 국영교회조차 예외가 아니었다.

**중**국 정부는 이른비언약교회를 갈수록 더 강도 높게 압박했다. 그리고 2018년 5월, 이른비언약교회에서 쓰촨성 대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리던 날, 경찰은 이를 급습하여 성경책 1만 권 이상과 기타 서적, CD 등을 압수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을 준비하도록 성도들을 훈련해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위협과 교회 폐쇄를 강요하는 경찰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강압한다고 꺾일 이들이 아니었다.

몇 개월 동안 정부의 핍박을 견뎌내던 이른비언약교회 지도자들은 이제 목소리를 높여 말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2018년 9월 1일에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를 발표했다. 하나님의 주권, 성경의 권위와 무오류성,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언서였다. 이 선언서는 “복음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다. 자유와 목숨까지도”라는 담대한 진술로 끝을 맺는다.

**2**018년 12월 9월, 청두시 경찰은 대대적으로 이른비언약교회를 급습하였다. 이 교회가 운영하던 학교, 신학교와 교회 자체가 폐쇄되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른비언약교회 교인 1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이른비언약교회 리웡치앙 장로는 체포되기 몇 시간 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다. “2018년이 막 저물기 직전, 12월 9일에 하나님은 대규모 핍박이라는 상을 주셨습니다.” 리 장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베드로전서 4장 12-14절 말씀대로 핍박을 직면하자는 지침을 교회에 전하고, 다음과 같이 교회의 사명을 일깨우며 편지를 마쳤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십자가를 집시다. 복음을 선포합시다.”

왕이 목사와 지양룡Jing Rong 사모는 ‘국가 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기소 및 구금되었다. 리웡치앙 장로를 비롯한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도 ‘싸움을 부추기고 소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공격과 심문을 받으면서도, 이른비언약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들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여겼다. 그들은 취조당할 때 대응하는 법을 배워 알고 있었다. 이른비언약교회의 온라인 강단에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여 심문 과정을 전도 과정으로 바꾸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심문실을 우리 교회의 새로운 집회 장소로 바꾸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다. 이른비언약교회의 어떤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교도관들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성도들의 삶을 보고 복음에 대해 마음이 누그러진 교도관에 대하여도 전해 주었다.

왕이 목사의 아내 지양룡 사모는 6개월 뒤에 석방되었으나 여전히 가택 연금 상태이다. 현재 지양룡 사모는 누구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금지된 상태이다. 리웡치앙 장로는 2019년 8월에 보석으로 풀려나 가족과 함께 후베이Hubei성으로 돌아갔다. 리 장로는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동안, 자신의 동향을 정기적으로 경찰서에 보고해야 한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데푸Qin Defu 장로와 9년을 선고받은 왕이 목사를 제외하면, 2018년부터 체포된 300명 이상의 이른비언약교회 교인은 현재 모두 풀려난 상태이다. 지난 10년이 넘도록, 왕이 목사보다 더 긴 징역형을 받은 가정교회 목회자는 없었다. 또한 체포되었던 교인 다수는 아직도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이다.

→ 6면에 계속됩니다.

“이 고난 덕분에 우리가  
복음의 달콤한 향기를  
낼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 리웡치앙, 이른비언약교회 장로

중국 정부가 2018년 12월 교회를 급습한 뒤, 그 여파로 성도들은  
▼ 도시 곳곳에 퍼져 예배를 드렸다. 이후 많은 이들이 수감됐다.



## 소식지(기도달력) 신청 방법

- 온라인(vomkorea.com) 신청
- 사무실(02-2065-0703)로 전화하여 신청
- 문자(010-3151-2065)로 신청: 수령자 주소와 성명을 보내주세요.



[김교신홈]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17길 15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솔샘로 26 지총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www.vomkorea.com || 02-2065-0703



한국 기독교 재정투명성협회  
1호 인증



[facebook.com/VOKorea.kr](https://facebook.com/VOKorea.kr)



[instagram.com/vomkorea](https://instagram.com/vomkorea)



[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https://youtube.com/voiceofthemartyrskorea)

2020년 6월

| 일요일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   |
|---|--|---|---|--|---|---|
|   | 1  | 2   | 3   | 4  | 5   | 6   |
|   | <b>이집트</b><br>이집트 교회가 중동 전역에 사역자들을 계속 파송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b>북한</b><br>감옥에 갇혀 고문당하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b>아프가니스탄</b><br>모든 부족과 언어권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b>사우디아라비아</b><br>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기독교인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b>네팔</b><br>성경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호해주시길 기도해주세요.                           | <b>방글라데시</b><br>로힝야 난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7   | 8  | 9   | 10  | 11   | 12  | 13  |
| <b>말리</b><br>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b>우즈베키스탄</b><br>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 <b>터키</b><br>핍박을 당해 추방당한 기독교 난민 수천 명이 소망과 위로를 얻도록 기도해주세요.         | <b>예멘</b><br>내전과 고통이 끝나기를 기도해주세요.   | <b>수단</b><br>누바산 지역의 병원 목회자들이 예수님이름으로 환자들을 위로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b>파키스탄</b><br>탄압과 핍박이 계속돼도 목회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해주세요.                  | <b>인도</b><br>핍박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b>키르기스스탄</b><br>작은 규모로 장사하면서 생계를 잇는 기독교인들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b>쿠바</b><br>반군의 공격에서 도망친 뒤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제마 지역 기독교 난민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b>중국</b><br>수감되어 있는 이른비언약교회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 <b>우간다</b><br>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b>인도네시아</b><br>최전방 사역자들이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b>케냐</b><br>젊은이들이 세속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기도해주세요.                 | <b>말리</b><br>북쪽 지역이 안정되어 추방당했던 기독교인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b>중앙아프리카공화국</b><br>계속되는 분쟁으로 나라가 분열되고 있지만, 교회는 계속 하나님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b>터키</b><br>기독교 가정들이 이 어두운 나라의 빛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b>에티오피아</b><br>집과 재산을 잃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b>투르크메니스탄</b><br>기독교인들이 투르크멘어로 된 자료들을 다운받아 읽고, 기독교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b>필리핀</b><br>산과 밀림을 여행하는 최전방 사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b>이란</b><br>예수님을 찾는 무슬림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사역자들이 분별력과 지혜와 이해력을 얻도록 기도해주세요. | <b>소말리아</b><br>다른 신자들과 교제할 수 없는 비밀 신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28  | 29   | 30  |   |  |   |   |
| <b>파키스탄</b><br>국민들이 전국에 배포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 말씀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b>미얀마</b><br>농촌 지역의 새 신자들이 약물남용과 거래를 거부하도록 기도해주세요.                        | <b>나이지리아</b><br>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 부족에 복음을 전하는 풀라니 부족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  |   |   |



주일학교를 빼앗긴 이 아이들에게  
'상자 속 주일학교'를 전해주세요

최근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사상 정신'과 예로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문화적 가치관을 증진하려면 모든 교육 과정을 정치적으로 검열해야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중국의 학생들은 국영 교회에 가든지 일반 학교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진핑이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로 가혹해지는 중국 정부의 기독교 규제 정책을 도구로 사용하여, 더 많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가정에서 책임지고 자녀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중국의 기독교인 부모들이 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일입니다."



지난 2월 허난성 주마다인 이청구의 한 교회는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사진제공:ChinaAid]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12개월 안에 '상자 속 주일학교Sunday School in a Box' 5,000개를 공급해달라고 한국 VOM에 요청했습니다. 이 상자에는 중국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합법이지만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료들, 즉 중국에서 가장 뛰어나면서도 합법적인 어린이 성경, 소형 동영상 재생기, 디지털 자료로 구성된 부모와 자녀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담길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 VOM은 상자 4,700개를 중국 현장에 공급했습니다. **이제 300개가 남았습니다.** 상자 하나의 금액은 75,000원입니다. '상자 속 주일학교' 프로젝트를 후원하고자 하는 분은 아래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 VOM 웹사이트: [www.vomkorea.com/donation](http://www.vomkorea.com/donation)
- 후원계좌: 국민은행 463501-01-243303 예금주: (사)순교자의소리

제작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받는 분 통장 표시란'에 본인 성명과 '상자'라고 기재해 주십시오. 기재하지 않으면 일반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상자 속 주일학교'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왼쪽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5,000 boxes**





▲ 왕이 목사가 함께 한 예배 현장(2018년). 폐쇄되기 전 이른비언약교회는 청주시 곳곳의 여려 캠퍼스에서 약 500여 명의 성도와 공공연하게 예배를 드렸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순교한  
‘왕지밍 Wang Zhiming 목사’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www.vomkorea.com/vl-06](http://www.vomkorea.com/vl-06)

**왕** 이 목사는 신앙 선언서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중국인이 장래에 대해 절망하도록, 그래서 그들을 영적 각성의 광야로 인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알도록 이 공산주의 정권의 핍박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단련하고 세워가시는 것이라면, 저는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자비롭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각 도시에 있는 대형 교회 다수는 최근 이러한 탄압이 일어나기 전 이미 어려운 핍박을 겪은 바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교회를 소규모 단위로 나누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었다. 2019년에 급습이나 폐쇄를 당한 교회는 여느 때보다 더 적었다.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 모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더 작은 모임들은 눈에 잘 띄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청주시 이른비언약교회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가 건전한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박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리윙치앙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크게 기뻐하며 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세상이 알면 좋겠습니다.”

## 해외소식

### 네팔:

#### 천 개의 가시 한가운데 편 장미

네팔의 극빈자 기독교인 가족은 최근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영적으로 급성장하는 체험을 했다. 이 가족은 매우 가난해서 정부 소유 토지에 마련된 거처에 살며 소작을 하는데, 수확물 절반을 정부에 소작료로 내야 했기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가족은 한 목회자를 만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은 뒤,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소망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왕복 26km를 걸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핍박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가족을 땅에서 쫓아냈고 이웃들은 마을의 공동 수도를 쓰지 못하게 했다. 그들의 담당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가정은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는 매우 짧은 기간에 성숙한 그들의 신앙에 감명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그 가족은 “기독교인의 삶은 천 개의 가시 한가운데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퍼트리는 장미 같아요”라고 목회자에게 말했다.

네팔의 소수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의 압박을 받는다. 네팔 사회는 모든 네팔인이 무조건 힌두교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팔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압박을 받을 뿐 아니라 괴롭힘과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 그리스도를 영접한 대가로 농작물을 잃고 물도 쓸 수 없게 된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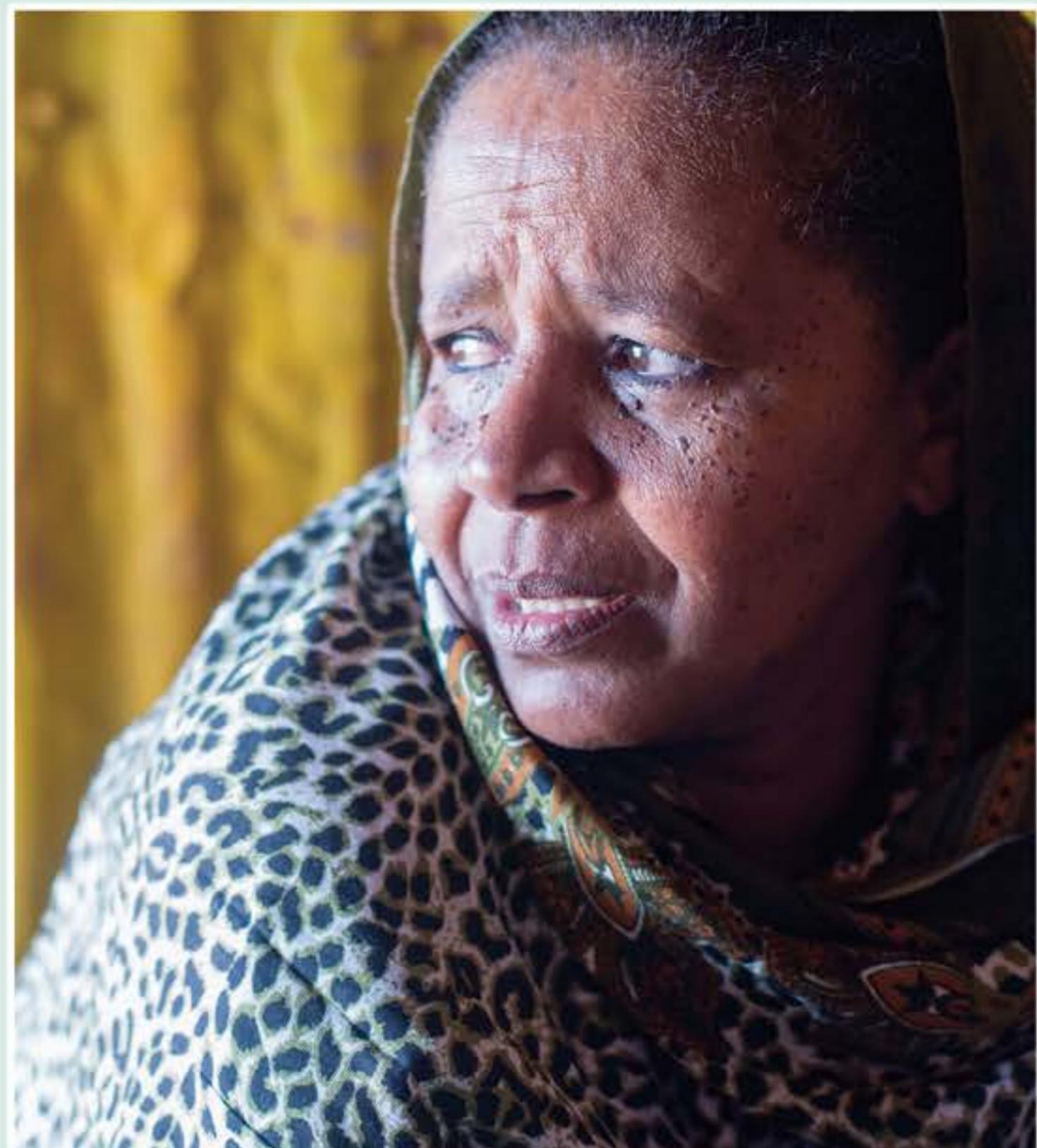
# 에리트레아:

## 악화되는 기독교인들의 상황

2018년, 에리트레아Eritrea와 에티오피아Ethiopia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 공로로 복음주의 계통 기독교인인 에티오피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에리트레아의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 대부분의 에리트레아 국민은 기본적인 인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 세계 난민 상당수가 에리트레아 출신이다. 에리트레아에 사는 이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고, 이곳에 사는 모든 젊은이는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나라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에리트레아의 한 기독교인이 말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인터넷도 거의 연결되지 않지요. 경제 상황은 나쁘고 국민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통화하는 내용은 모두 도청당합니다.”

에리트레아 정부는 지하교회와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지난해에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정기적으로 체포하여 가두었다. 이들은 재판도 받지 못한다. 현재 약 600명의 기독교인이 에리트레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성인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방치된 기독교인 어린이도 47명가량이다. 또 다른 기독교인은 “많은 사람이 이곳을 떠나려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우리 가족도 깊은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에리트레아 출신의 알마즈는 2003년 남편과 함께 체포된 이후 남편 소식을 듣지 못했다. 현재 그녀는 난민 캠프에서 산다.



▲ 보코하람 무장 대원들이 카메룬의 여러 기독교 마을에서 주민을 살상하고 많은 이들을 내쫓았다.

# 카메룬:

## 신실하게 양떼를 돌보는 목회자

보코하람Boko Haram이라고 하면 보통 나이지리아Nigeria가 떠오른다. 하지만 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단체는 카메룬Cameroon과 니제르Niger에서도 활동한다. 이 중에서도 그들이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나이지리아 북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들이다. 그런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나이지리아 형제자매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적인 공격으로 고통을 당한다.

보코하람 무장 대원들이 카메룬 북부에 사는 실라스Silas 목사와 다른 목사 몇 명의 집을 파괴한 뒤, 실라스 목사는 가족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지만 자신은 양떼를 떠나지 않았다. 양떼를 돌보는 일에 헌신한 실라스 목사는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주 성도들을 보살피기 위해 찾아온다. 실라스 목사는 “우리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쁘게 희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순교자의 소리는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국경 양쪽의 목회자들, 즉 실라스 목사처럼 매우 위험한 곳에 남기로 결단한 목회자들을 지원한다. 또한 순교자의 소리는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된 기독교인 800명에게 구호품을 공급하고 있다.

# 순교자의 영성을 전하는 한국 VOM 도서

-판매 수익금 전액은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 한국 교인의 영성화복을 위한 책



### 『만주선교 방법론』

지금도 '순교자의 소리'에서 북한 현지 사역에 적용하고 있는 존 로스John Ross 선교사의 중국 선교전략 일부를 발췌한 책.

10,000원



### 『온전한 헌신』 1, 2

신약의 '스데반'부터 1981년 이란의 '바흐람 데퀴니-타프티'까지 60명의 순교자 이야기 모음집.

각 10,000원



### 『새 하나님, 새 민족』

하나님이 과거 조선에 주셨던 부르심을 현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고 되찾을 수 있도록 돋는 책

10,000원

## 북한 사역의 이해를 돋는 책



### 『믿음의 세대들』

북한에서 성경없이 3대에 걸쳐 하나님을 전했던 한 가문의 실화.

10,000원



### 『조선어 스터디 성경』

남한 학자 및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인정한 최고의 북한 성경.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국제적 압력에 대항하여 북한 평양출판사가 1980년 남한의 공동번역과 조선족 성경을 토대로 만든 성경.

큰글자 30,000원/ 일반 25,000원



### 『북한을 위한 30일 중보기도』

억압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 형제자매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담은 책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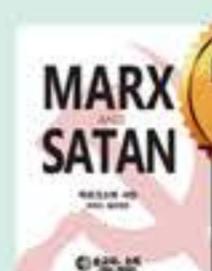
## 리처드 월브란트 목사님의 저서



###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리처드 월브란트 목사가 공산주의 치하에서 겪었던 고문과 독방 수감 생활에 대한 이야기.

10,000원



### 『마르크스와 사탄』

마르크스에 관한 자료를 통하여 공산주의의 영적인 뿌리가 사탄 숭배임을 증명한 월브란트의 책.

10,000원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월브란트 목사가 감옥에서 만난 성도들의 놀라운 간증을 모아 엮은 365일 묵상집.

15,000원



### 『월브란트』

월브란트 목사의 베스트셀러 3권을 하나로 엮어, 목사 부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을 감수하는 사랑'을 전하는 책.

15,000원

할인가 13,500원



###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핍박과 시련에서도 믿음의 본이 된 50명 이상의 기독교인 이야기.

10,000원

## 현재 한국 상황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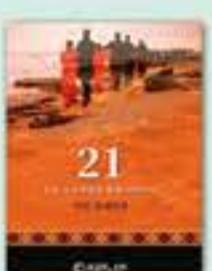


###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월브란트와 폴리 목사가 동성애를 포함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을 영적으로 함께 파헤치면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예언적인 책.

각 10,000원

## 전 세계 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 『21 - 콥트 순교자의 땅에 다녀오다』

2015년 시리아 해변에서 IS에 의해 살해된 21명의 순교자를 통해 콥트 기독교인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책.

10,000원

할인가 9,000원



### 『꿈과 환상』

'테러'보다는 무슬림을 위해 꿈과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먼저 배워야 함을 일깨워주는 책.

10,000원



### 『이슬람이냐 죽음이냐』

무슬림 공동체에서 목에 칼을 대고 예수님이 부인해야 살려준다는 협박에도 신앙을 지킨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10,000원



### 『에리트레아-간혀버린 민족』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는 에리트레아.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 중 하나인 에리트레아에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

10,000원



### 『이란-희망과의 조우』

폭탄이 떨어지는 혼란과 정부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하며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이란 기독교인들의 이야기

10,000원



### 『마인드 오브 테러』

무슬림 테러리스트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하여 사역자가 된 타스 사다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책

10,000원

## 중국어 도서



###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지하교회를 심으라』, 『지하교회로 살라』

10,000원



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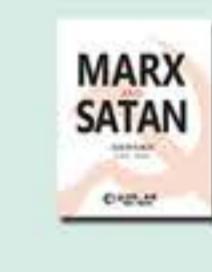


10,000원



###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



10,000원



10,000원

## 러시아어 도서



### 『지하교회를 준비하라』

10,000원



###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10,000원